

# “2% 부족해”... 佛 보르도 2023년 빈티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가격이 적당하다면 2023년 보르도 와인을 사겠지만 다른 이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와인 평론가 제임스 씨클링)

“보르도 2023년 빈티지는 블루버스터는 되지 못할 것이다.”(와인 평론가 와인스펙테이터)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빈티지와인의 앙프리에르(En Primeur)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프랑스 보르도를 찾았다. 그런데 극찬이 이어진 2022년과 달리 나오는 반응들이 영 시원찮다.

앙프리에르는 보르도 특유의 선물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와인이 병 속에 담겨 완전한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전에 미리 사들이는 입도선매 개념이다. 와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 2023 빈티지 소개 화면.

/UGCB

이너리 입장에선 미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판단만 잘 내린다면 좋은 와인을 싸게 선점할 수 있다.

2023년 빈티지라면 시중에 나오기는 커녕 이제 막 배럴통 안에 담겨진 상태다. 와인 전문가들은 이런 숙성 전의 와인을 맛보고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뒤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평가한다. 이들의 의견이 모여져 앙프리에르에서 매매가의 기준이 된다.

2023년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다. 작

년에는 다소 더운 한 해였지만 대부분의 와이너리가 수확시기를 당기면서 산도를 살렸고, 균형감을 갖췄다. 그런데 막 뛰어나다고 말할 부분도 없었다.

제임스 씨클링은 “최고의 와이메이커는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었지만 일부는 어려움을 겪은 듯했고, 과실미와 구조감 등에서 2022년보다 못했다”고 설명했다.

맛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니 관건은 가격이 됐는데 와인시장을 둘러싼 환경

이 너무 좋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 판매는 줄었고, 수입업체와 유통업자, 와인 소매상까지 이미 쌓인 재고만으로도 벅차다. 높은 금리를 감안하면 좋은 와인을 선점하겠다고 몇 년씩 돈을 묶어두기도 힘들다.

일단 가격은 많이 낮아졌다.

롯데 높았던 샤토 라피트 로칠드도 2023년 빈티지를 병당 396유로로 2022년부터 30% 이상 할인해 내놨다. 샤토 무롱 로칠드 역시 전년 대비 36% 싸게 병당 330유로로 가격을 책정했다. 현재 팔리고 있는 2019년 빈티지의 반값에 불과하다.

빈티지에 대한 평가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앙프리에르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용론이 거론되면서다.

한 와인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앙프리에르는 판매보다는 가격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며 “수십년 전 현금 흐름에 절실했던 와이너리들은 이제 자금이 충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부

르고뉴 와인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바롤로 등 당장 살 수 있는 수백 가지의 고급 와인들이 있는데 보르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샤토 라투르는 지난 2012년부터 앙프리에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2000, 2003년 빈티지의 유명한 와인은 8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10년을 놓고 보면 평균 수익률이 47.2%지만 최근 몇 년간은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다.

와인종합지수 리벡스(Liv-ex)에 따르면 2022, 2021, 2020, 2018, 2017년 빈티지의 상위 500개 보르도 와이너리의 현재 가격은 모두 앙프리에르 가격을 밑돈다. 2019년 빈티지만 수익을 냈다.

UGCB도 “앙프리에르는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출시된 이후 가격보다 10~30%는 저렴하다”면서도 “최상의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지만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smahni@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마음 낱말들에 붙인 주석

초면인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를 아는 지인들에게 “A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곤 한다. 일종의 평판조회랄까. 잊혀지지 않는 대답은 “무섭다”였다. 사람이 귀신도, 호랑이도 아닌데 왜 무서운지 궁금했다.

얼마 뒤 A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알게 됐다. A는 ‘뭐 같은’ 인간이었고, 차마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 없었던 친구는 애둘러 ‘무섭다’고 표현한 것이었던 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의 정의’ 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에 대해 마음에 품고 있는 ‘나름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마음사전’은 김소연 시인이 마음을 지칭하는 낱말들에 주석을 붙여 엮은 책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시인은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잘 오해해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 자했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았느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침을 가한다.

책에는 이런 촌철살인의 문장들이 가득하다. 죽비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마음사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랑’에 대한 시인의 냉소다. 그는 “거짓말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관계는 가족과 연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굳게 맺어진 이



#### 마음사전

김소연 지음/마음산책

관계는,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장 많은 약속을 하면서 영위되고 있다”며 “약속은 범람하면 할수록 지켜질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마저 하게 된다”고 한탄한다.

시인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약속은 일종의 ‘노을’이고, 그 약속을 마치 다 지켜줄 사람으로 착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셈이다”며 “그 착시를 통해 관계는 강인하게 매수되고 단련된다”고 이야기한다.

‘마음사전’을 순식간에 독파한 뒤 ‘사랑’이란 단어 아래 나름의 주석을 달아 봤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해 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고, 너무 많은 의미 부여로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무엇.”

320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k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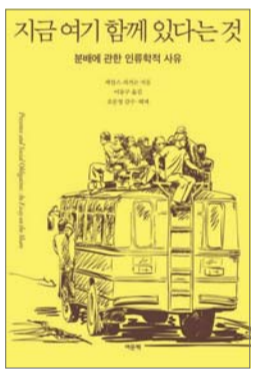
###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부의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오랜 고질병 가운데 하나다. 부자와 빈자의 간극은 매워질 수 없을 만큼 벌어졌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사람들은 ‘잉여인간’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 누구도 내가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책은 ‘사회’를 ‘개인 간의 단순한 집합이나 연합이 아닌, 구성원들이 구속력 있는 의무로 묶인 특정한 종류의 집단

적자아’로 정의한다. 사회라는 최소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의무’ 또한 이끌어낼 수 없다.

저자는 “우리는 감각의 확장, ‘성원권’의 범위와 정치적 연대의 폭 확대’를 통해 ‘내 코가 석 자’라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분( 뒷)’을 나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132쪽. 1만4000원.

제임스 파거스 지음/이동구 옮김/여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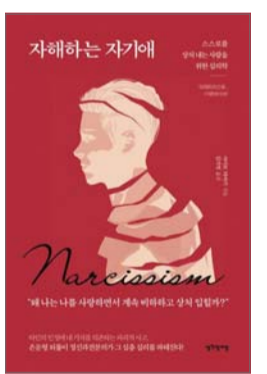
### 자해하는 자기에

“나는 쓸모없고 못났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야” 자기비하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던져 상처주는 이들의 습관화된 자기부정·비난의 배경에는 사실 자기에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상적 자기에’가 바로 그것. 이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파괴적으로 작동해 자신을 상처 내는 자기에’로 정의된다.

저자는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특히 많다”며 “자상적 자기에의 핵심 구조는 ‘강한 자존심과 약한 자신감’ 사이에 생기는 격차”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헤매게 되는 미로, ‘자상적 자기에’를 깨닫고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는 심리 안내서.

288쪽. 1만8000원.

사이토 다마키 지음/김지영 옮김/생각정거장



### 몸과 마음 사이에서 철학하다

‘나’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다. 책은 ‘내 몸’과 ‘내 성격’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몸과 마음 탐구서다.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스무살부터 13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받아온 그는 아픈 몸으로 지내며 ‘몸’과 그곳에 움튼 ‘마음’을 생생히 체험한 경험을 나눈다.

“나를 조종하는 건 몸일까, 마음일까?”, ‘내 몸인데도 왜 내 맘처럼 할 수 없을까?’, ‘지금 내 모습은 옳이 내가 만든 걸까?’, ‘사회는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몸과 맘을 꼭 나눠 생각해야 할까?’,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잘 사는 법은 뭘까?’ 등의 질문을 통해 몸과 맘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로 톺아본다. 160쪽. 1만4800원.

가사라키 히로키 지음/윤예지 그림/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



##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일본 수도권서 진도 5.4 지진...쓰나미 우려는 없어  
▲美 민주당 하원, 또 바이든 사퇴 요구...미니 경선 논의도 /사진 뉴시스

▲하마스, 한 달 만에 이스라엘에 새 휴전안 제시  
▲시진핑-푸틴, 회담서 친밀감 과시...“두 나라 관계 역대 최고”



▲계속된 폭우에 중국 양쯔강 범람 지속...“100년에 한번 있을 홍수”  
▲자메이카, 허리케인 ‘베릴’ 강타에 사망·실종 10여명 /사진 뉴시스